

Gentleman

2015

THE NEW YEAR ISSUE

IT'S MY DESIRE

CAR OF THE MONTH

세련된 마초, 신형 머스탱

STYLING TIPS IN JANUARY

터틀넥과 슈트의 조합
오버사이즈 코트 입을 땀 어떻게

G LIST

- ▶ 새해엔 내 집을 짓고 싶다
- ▶ '작구'의 달인이 되고 싶다
- ▶ 좋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다
- ▶ 제철 해산물을 산지에서 먹고 싶다

누구나 자신만의 바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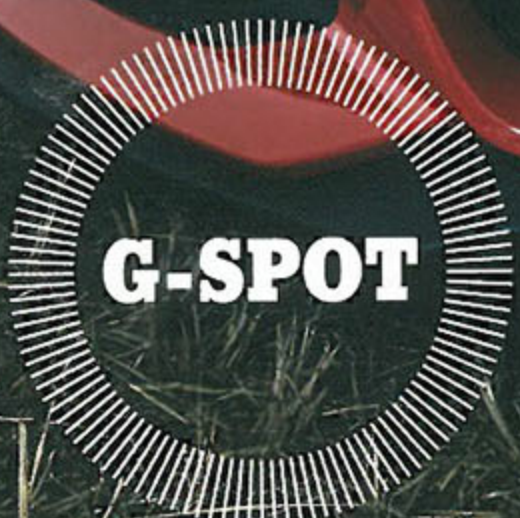
(미생)의 명품 조연 6인 인터뷰

GENTLEMEN OF THE MONTH

김정훈이라는 남자
사유리와 주병진이 만나면?
신사가 된 청년들, 인파니트

KOREAN NEW WAVE

황희 정승이 마셨다는 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방패연에서 모티프를 얻은 옷은?
옷칠로 만든 아이폰 케이스는? 한국의 전통을 재발견하고 모던하게 재해석하는
새로운 코리안 웨이브에 주목한 <젠틀맨>의 신선한 리포트.



왜 나는 김동률과 토아에 실망했나
유나클로 입는 사회학자 노명우의 세속 담론
'기레기'와 '블로거'의 나라에서

GENTLEMAN KOREA Vol. 29
JANUARY 2015
정가 5,900원



9 772287 461508
ISSN 2287-4615

01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이전부터

이미 대안공간 루프에서 김윤철 작가의 개인전을 기획한 박정연 큐레이터는 과학에 대한 예술가들의 탐구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과학자와 예술가들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한다는 사실이다. 우주에 한 번도 가지 못한 과학자가 우주를 연구하고, 예술가들은 상상 속의 이미지를 작품으로 만든다. 과거로부터 예술가와 과학자는 서로의 장점을 나누어 협업했고, 예술가와 과학자의 장르를 굳이 나누지 않았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더라도 그는 미술가이자 과학자, 철학자였다. 하지만 현대에는 예술과 과학이 경계를 명확하게 나누고 있으니, 미술가들의 과학 탐구가 흥미롭게 생각될 수 밖에 없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21세기에 과학적 지식이 없다면 미술가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모두 표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화와 조각 등 전통적인 미술 장르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술가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모든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물감과 연필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미술가들은 새로운 학문과 테크놀로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과학자들은 미술가의 상상력에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첨단 기술을 사용한 미술 장르를 '미디어 아트'라고 통틀어 표현하는데, 해외

이기봉, End of the end



이기봉, WetPsyche-no wind, 240x180cm



미술계에서는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단어를 지양하고 있다. 유럽은 지금 하이브리드 아트, 바이오 아트, 신소재 공학 아트 등 다채로운 첨단 과학의 예술 협업 열풍이 거세다. 박정연 큐레이터는 '예술과 과학'으로 최근 트렌드를 정의하기보다는 '아티스틱 리서치(예술적 연구)'라는 용어가 보다 합당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3월에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 세계적 아티스트 빌 비올라 역시 '삶과 죽음'에 대한 숭고한 영상 작품을 만들지만, 사실 그의 작품은 1980년 미일 문화 교류 지원금을 받아 일본에서 첨단 비디오 기술을 익힌 것에서 출발했다. 일본에 있는 동안 소니 '아츠키(Atsugi)' 연구소의 첫 번째 입주 작가로 지내며 그의 영상 기술과 이해를 더욱 발전시킨 것. 1984년에는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동물적 의식에 관한

프로젝트를 위한 입주 작가 생활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선종의 대가인 다이엔 다나카에게 전수받은 불교 철학 그리고 이슬람 수피교, 기독교 신비주의에 바탕을 둔 작가의 정신 세계가 중세 시대 종교화와도 같은 엄숙한 작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이기봉 작가 역시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생태학이나 생물학적 관련성 속에서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물질에 대한 이해를 통해 판타지로 전환하는 작가이다. 작가는 습기가 많은 산 중턱에 작업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물과 안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습기는 미술 작품을 손상시키는 치명타이지만, 그는 이를 작품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플렉시글라스 위에 페인팅을 하거나 젖지 않고 물 위를 유영하는 가죽 책 등을 만들어냈다.